

## 2023년 5월 21일 “여호수아(4) 길갈에 머문 이유”(수 5:1-9)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은 전쟁의 긴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할례를 행합니다.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 [1] 할례를 받으라(2 절)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첫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시입니다(창 17 장). 할례를 행하면 육체적으로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므로 전쟁 상황에 합당치 않게 보이는데, 왜 명하신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걷고 그 끝에 유업의 선물을 약속하십니다. 이 유업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동시에 쟁취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에겐 두개의 렌즈가 필요한데, 하나는 쟁취하기 위해 영적 전쟁의 현장인 세상을 보는 렌즈이고, 또 하나는 유업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렌즈입니다.

쟁취하기 위해서 전쟁 준비에 힘써야 합니다. 전략 짜며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어떤 성품과 수준과 안목과 능력을 갖추기를 원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유업의 진가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시려는 의도였습니다.

### [2] 수치를 없애시려고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수치가 남아있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9 절).

하나님은 유업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내적으로 강건하고 선하길 원하십니다. 세속의 사람들을 맞설 때 위축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 광야 1 세대는 이집트에서 치욕스러운 종살이를 했습니다(출 1 장). 이들은 인간 이하 취급을 당하며 수치심이 쌓였는데, 이것이 지속되면 인간성도 타격을 입습니다(노예근성).

그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를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수치를 처리하고 사람의 고귀함을 회복하여 참 유업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람(‘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은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으로 개명되었습니다.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한다면, 할례를 받은 가나안 1 세대는 여러 민족 중에서 장자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새기게 됩니다(출 4:22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 할례를 통해 내적 자질을 갖춘 장자 민족으로서 회복의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 [3] 마음의 할례

그러면 신약시대 성도에게 할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울은 롬 2:28-29 에서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로 재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이 할례로 인한 내면적 변화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사랑 그리고 회개입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에서도 천명된 바 있습니다(신 30:6, 렘 4:4). 우리에게도 복된 유업으로 나아가는 길에서

마음의 할례가 요구됩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이 유업으로 약속되었듯이 하나님 자녀에겐 삶의 모든 현장에서 유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유업은 영적이고 정신적 차원, 그리고 물질과 건강의 차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그것의 종류와 주시는 시기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유업의 특징은 평강과 위로와 기쁨과 만족입니다. 유업자의 특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현대에는 옛날과 같은 주종 관계는 아니지만 SNS 나 여론을 통해 인신 공격, 악플, 왕따, 명분 없는 전쟁 등으로 인간의 내적외적 가치를 빼앗고 수치를 일으킵니다. 사람은 싸움질을 하면 내면의 선한 가치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마땅히 지켜야 할 영적 금지를 잃습니다. 이것을 잃으면 상대를 인정하고, 우대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피폐해지고 많은 것에 수치를 느낍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인 고귀한 가치로 창조되었으며, 보시기에 무척 좋았던 존재입니다. 이 소중한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 수치로부터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이 수치를 없애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길갈에서 체험했듯이 우리 또한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의 유업자로서 영적 금지가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 <나눔의 질문>

1. 나의 현재 상황에서 세상과 하나님을 보는 두 개의 렌즈를 사용하여야 할 일이나 관계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2. 수치심이 내 안에 남아 있는 것은 삶과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칩니다. 혹 당신에게 수치심을 준 말이나 사건이 있습니까? 내면의 깊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가고 있습니까?